COP28 산업계 대표단 출장 결과

(2023.12.15. 한국화학산업연합회)

<COP28 주요 시사점>

√ 파리협약 6조(국제탄소시장)에 대한 합의 실패. 국제감축사업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칙 마련에 추가 시일 소요 및 실제 사업 개시 시점은 더욱 늦춰질 것으로 전망

√ 차기 NDC는 '25년 제출이며(목표년도 '35년), IPCC 보고서에 따르면 1.5℃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서는 '19년 대비 '35년 60% 감축이 요구되어 차기 NDC 수립 난항 전망

□ 산업계 대표단 개요

○ 목적

- 산업계의 능동적 기후변화 정책대응을 위한 전략수립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기회로 활용
  - ·특히, 국내 배출권거래제 내 해외 배출권 활용이 허용된 상황에서 국제 배출권 시장 및 감축사업 지침은 국내 기업들의 배출권 운영 및 감축사업 의사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

○ 주최 :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(당사국총회 공식 옵저버)

○ 대표단 파견일정 : 2023.12.4(월)~11(월), 6박8일

○ 참가 : 한국석유화학협회, 한국철강협회,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, 발전 5개사, 한국거래소 등 47여명

□ 주요 활동결과

○ 산업부 간담회(12.4, 김진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등 참석)

- COP28 한국 정부 주요 동향
  - · 독일이 주도하는 기후클럽 가입(36개국 참여).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산업 및 경제구조가 유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선제적으로

고민한 국가임.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독일을 벤치마킹하고 적극적 대응코자 가입 선언

- UAE가 주도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, 에너지 효율 2배 이니셔티브 지지선언. UNFCCC 198개국 중 118개국 가입
- 2050년까지 원전 용량 3배 지지 선언.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처음으로 원전이 감축수단으로 적극적 논의됨

- 개도국 및 선진국 간 기술 및 재원 지원에 대한 입장차 여전
- CCUS 관련 선진국은 난감축분야만 우선 적용, 개도국은 발전을 포함한 전분야에 적용하자는 입장차 존재

○ CF연합 간담회(12.5, 이회성 CF연합 회장 등 참석)

-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써 재생에너지 외 수소, 원전 등 모든 무탄소 에너지로 확대하자는 건의를 국제사회에 제시하였음
- 국제사회에서의 CFE 인정 체계를 확산하고 국내 무탄소 연·원료 사용 촉진 협력 방안을 위해 노력 중

○ 국회기후변화포럼 간담회(12.6, 한정애 의원, 김웅 의원 참석)

- 산업계 주도의 COP 홍보관 마련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인 참여 독려
- 한국의 탄소중립 노력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공유

○ 산업계 대표단 세미나 개최(12.6 한국 홍보관)

- 산업계 감축 노력 발표(포스코, SK C&C, 한국남동발전, 우아한형제들) 및 패널 토론(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, 카이스트 배충식 교수,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호무 본부장, NH투자증권 최현준 부장)으로 진행
- (총평) 한국 산업계의 감축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한국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

○ 외교부 간담회(12.6,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참석)

- 6월 독일 Bonn에서 열린 실무회의부터 의제 선정에 난항
- 파리협정 2.1(c) ‘모든 금융 흐름을 저탄소 프로젝트로 흐르게함’ 에

대한 논의를 COP28 공식 의제로 채택하자는 것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으며 결국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COP 하위 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함(금융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껏 공식의제로 논의된바 없음)

- (NCQG)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에서 선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,000억불의 기후적응자금을 공약하였으나 2023년에야 처음으로 1,000억불 공약이 이루어졌고, 이제 후진국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적응자금(NCQG, New Collective Qualified Goal)을 논의하며 10,000억불 ~ 100,000억불 수준을 기금을 선진국에 요구하고 있음. 선진국-개도국 간 입장차가 큰 이슈로써 내년 COP29로 논의 및 의사결정을 연기

- (손실과 피해) 지난해 COP27에서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년여 간의 실무협상 결과 이번 COP28에서 기금 마련에 합의하고 기금운영을 일시적으로(4년) World Bank에 위탁키로 함. World Bank 최소 위탁금인 2억불 마련을 위해 UAE 및 독일이 각 1억불을 기부하기로 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미국 또한 1,750만불을 기부 선언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중

- (총평) 기후변화는 북극 빙하가 녹는다는 자연재해 이슈로 시작하여 화석연료 퇴출 논의와 함께 전세계 경제이슈로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홍수 및 가뭄, 화재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겪으며 사회이슈로 고도화되었음. 아울러 선진국 출신의 수많은 글로벌 인재 및 자본들이 국제 협상에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○ 환경부 간담회(12.8,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참석)

- 간접배출 규제 제외를 건의. 단, 재생에너지 구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면밀한 영향 검토와 함께 진행 요청
- 국외감축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상 및 대응 요청
- 배출권 예비분의 시장 안정화 용도 활용, 대기 총량제 기본계획 수립시 TMS 시설들의 배출량 반영 등 건의

□ **대표단 사진**

참고	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(COP28) 결과

□ 개요

○ 회의명칭 :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8, The 28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)

○ 일시 및 장소 : 2023.11.30. ~ 12.12, UAE 두바이 엑스포 시티

○ 참석 : 198개국 정부대표, 국제기구, 산업계 및 NGO 등 약 9만명

○ 핵심 안건
- 각 국 감축현황을 분석한 전지구적이행점검(Global Stocktake, GST)
-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용 결정
- 신기후체제 下 국제감축사업(6.2조, 6.4조) 세부 이행규칙 논의

□ 회의 결과

[전 지구적 이행점검(Global Stocktake, GST)]

* 각국 NDC 및 배출현황을 모두 취합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. 파리협정 시작('15) 및 NDC 목표연도('30) 사이 중간점검('23)의 성격

ㅇ 파리협정 이행을 점검하는 '전 지구적 이행점검(파리협정 제14조)' 의 제1차 결과가 금번 당사국총회에서 도출

ㅇ 그 동안의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국들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총 21페이지 196 문항의 결정문 채택

ㅇ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예측되었던 4℃ 온도상승에서, 당사국들이 제출한 NDC 이행시 전 지구적 온도상승 2.1~2.8℃ 이내 제한 가능 확인

ㅇ 1.5℃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'19년 대비 '30년 43%, '35년 60% 감축 필요. 아울러 '25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 및 '50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다는 기존 감축경로 재확인

ㅇ 에너지 분야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

에너지효율 2배 증대, 저감장치가 없는 석탄의 단계적 감축, 에너지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

ㅇ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1.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외에 원자력, 저탄소 수소, CCUS 등이 명시

ㅇ 손실과 피해 관련, 사무국이 정기 종합보고서를 마련키로 함

ㅇ 전 지구적 이행점검 후속 조치를 위해 내년 당사국총회부터 연간 GST 대화체를 개최하고 GST의 결과가 어떻게 당사국의 NDC 준비에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정보 공유 및 관련 보고서 발간 예정

[감축 작업프로그램(Mitigation Work Programme, MWP)]

* COP27에서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. '23~26년간 별도 대화체(dialogue)를 구성하여 ❶부문 및 주제별 감축 방안, ❷기술, ❸정의로운 전환 등 의견 공유

ㅇ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(Just Energy Transition)을 주제로 금년에 처음 운영

ㅇ 초기 운영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적 개선사항 및 당사국 간 논의 내용을 반영하는 결정문 채택 합의

ㅇ MWP 下 대화체의 참여 범위 확대, 투자중심 이벤트에 다자은행, GCF 및 기타 금융기관의 참여 등 개선 방안 마련

[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(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, JTWP)]

ㅇ COP27에서 출범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설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

* Just Transition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 차이가 큼. (선진국) 내수 시장에서 난감축 분야의 공정한 전환 vs (개도국) 글로벌 시장에서 역사적 배출 책임주체 문제

ㅇ JTWP를 '24년~'26년까지 운영 후 재검토하고, 별도 대화체(dialogue)를 구성하여 에너지, 사회경제, 노동력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기회, 도전과제 및 장벽 등 의견을 공유하는 것으로 타협

[파리협정 제6조(국제탄소시장)]

ㅇ 파리협정 제6조(국제탄소시장) 기술지침 합의 실패 및 내년도 논의 지속

ㅇ 제6.2조 세부 기준 마련에 추가적인 시간 소요 및 제6.4조 사업의 등록 개시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

[적응(Adaptation)]

ㅇ 이번 총회서 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(Framework for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) 설립 결정

ㅇ 파리협정 7조 1항 內 정성 목표(❶적응역량 강화, ❷회복력 증진, ❸취약성 저감)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 및 전체적인 진전 검토 지침 제공

ㅇ 전지구적 적응 목표 체계는 전 세계 차원의 부문별 및 정책주기별 목표치(target)는 제시하나 구속력은 없음

[손실과 피해(Loss and Damage)]

ㅇ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관련 UAE 1억불 외 독일, 미국, 일본 등 일부 국가들도 정상회의를 통해 재원 공여*를 선언

* UAE 1억불, 독일 1억달러, 이탈리아 1억유로, 미국 1750만불, 일본 1천만불 등

ㅇ 기금 운영 및 사무국은 세계은행(World Bank)이 4년간(잠정) 유치

[투명성(Transparency)]

ㅇ 1년 앞으로 다가온 격년투명성보고서(BTR*)의 작성 및 제출 기한 준수를 위하여 개도국에 필요한 재원과 역량배양 지원 현황 확인 및 '25년 6월까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 등을 담은 결정문 채택

*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: 모든 당사국이 '24년부터 격년 주기로 UN에 작성·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/ 1차 BTR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제출

ㅇ 모든 당사국은 BTR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, NDC 이행·달성 경과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, 개도국은 자체적인 보고 시스템이 없거나 전문가 부족 보고서 제출에 차질 예상

[재원(Finance)]

ㅇ '25년 이후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(NCQG*)를 '24년말까지 수립하기 위해 '24년 NCQG 작업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 합의

*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: COP26('21년)에서 '24년까지 NCQG 수립에 합의

[기술지원(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)]

ㅇ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정책 결정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(TEC*)와 기술협력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(CTCN)는 COP27에서 확정된 8대 중점 기술분야**에 따른 기술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공동연차보고서를 최초 발표 및 확정

*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, 기술집행위원회 : 개도국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산하에 설립된 정책기구

** 디지털화, 물-에너지-식량 시스템, 에너지 시스템, 건물 및 인프라, 기술로드맵, 국가혁신시스템, 기술 수요평가, 비지니스와 산업

ㅇ 기술집행위원회 주도로 AI 이니셔티브*(AI4ClimateAction) 신규 출범 및 선진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지원 분야에서 AI · 디지털이 강조됨

*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행동을 위한 변혁적인 기후솔루션을 발굴하고, 스케일-업 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